

보도 일시	2022. 11. 14.(월) 14:00	배포 일시	2022. 11. 14.(월) 14:00
담당 부서	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	책임자	과 장 하종철 (042-481-7520)
		담당자	연구관 이해진 (042-481-7514)

세계의 수치예보 기술을 나누고 미래 발전을 논하다

- 202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 개최 -

- 차세대사업단, 「202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(KIAPS) 국제 학술 토론회: 전 지구 수치예보체계 모형화」 개최
 - 유희동 기상청장, 학술 토론회 개최 축하 및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 발전 기원
 - 11월 14일~16일, 3일간 세계 각국의 기상전문가와 과학기술 지식 및 경험 교류
-
- (재)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(단장 이우진)은 11월 14일(월)부터 11월 16일(수)까지 ‘전 지구 수치예보체계 모형화’ 를 주제로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「202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」 를 개최한다.
 - 「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」는 선행사업인 「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」이 시작된 2012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 되어 온 수치예보 분야 연례 학술행사이다. 이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수치예보체계 모형화 관련 분야 기상전문가와 국내 연구진이 만나, 차세대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방향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교류한다.
 - 올해 학술 토론회는 3일간 진행되며, 다양한 분과에서 전 지구 수치예보 체계 모형화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이 공유된다.

- 1일 차(11월 14일(월))에는 전 세계 주요 현업기관의 전문가가 각국의 수치예보체계 운영현황을 소개한다.
 - 2일 차(11월 15일(화))에는 초청된 수치모델 분야 전문가가 역학코어, 물리과정, 결합모델 개발 현황을 공유한다.
 - 3일 차(11월 16일(수))에는 관측 전처리 또는 자료동화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.
- 유희동 기상청장은 “수치예보 기술의 발전에 전 세계적 기술협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그간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나눔으로써, 위험 기상과 이상 기후로부터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” 라고 밝혔다.
 -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은 “이번 학술 토론회가 궁극적으로 극한기상과 기후현상에 대한 예측성 향상과 수치모형화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.” 라고 전했다.
 - (재)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2020년부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체계를 개발해오고 있다. 차세대수치예보모델이 2026년까지 완성되면, 초단기(6시간)부터 연장 중기(최대 30일)까지의 위험기상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과학적 기반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 - 「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사 누리집(<http://www.kiaps-symposium.com>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 - 붙임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 사진



| KIAPS 국제 학술 토론회 개회식에서 축사하는 유희동 기상청장 |



| KIAPS 국제 학술 토론회 기념사진(가운데 유희동 기상청장) |